

제주 코로나19 방역 ‘산 넘어 산’

대구·경북 집중하는 사이 서울 거주 입도객 확진
구로 콜센터 근무 직원… 도내 콜센터 방역 강화
밀집근무시설 소독 등 감염예방 대응체계도 격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는 입도객 관리를 강화하는 사이 서울에서 온 40대 여성이 제주 방문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4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시 동작구보건소에서 A(41·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기준 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주에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체류했다.

A씨는 체류 당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제주공항과 제주시버스터미널, 성산리, 김녕리, 함덕해수욕장 등을 방문했고,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이었다.

제주를 찾은 이유는 전날인 6일 구로구 콜센터를 퇴사하면서 휴식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 소재 숙박업소 포인트 만료 기한이 임박한 부분도 작용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A씨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해병대 장병들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11일 코로나19 차단 위해 제주시민숙소일대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동선 5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으며, 제주행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 식당, 펜션, 편의점, 버스가사 등 33명의 접촉자를 확인해 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A씨가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제주120만덕콜센터를 비롯한 밀집근무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기존 주 1회만 진행했던 소독 작업을 2회로 확대하고, 발열체크도 출근과 점

심 후, 퇴근 시 3회로 늘렸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명 모두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대구공항에서 오는 입도객은 다른 노선 항공기 탑승객과 분리된 동선을 이용하게 하고, 별도 공간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이나 여행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① 선택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기획Ⅲ 아젠다20

의료시설·인력 수준 상대적 열악

<10>의료체계·감염병 방역체계

▶제주 의료기관 불균형 심화=제주도는 섬이란 고립된 지형적 특성상 응급 및 중증환자 발생시 도내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보다 세밀한 의료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은 매년 비행기를 타고 대도시권 병원을 오가느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산다.

도내 상급의료기관 없어
매년 13만명 대도시 진료
감염병 대응 체계도 허술

도내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제주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수는 1차 병원 647개, 2차 병원 20개다. 서귀포의 경우 1차 병원 207개, 2차 병원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8년 기준 제주의민 13만9610명이 육지 병원으로 원정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정진료도 민들이 지출한 진료비만 135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 510억원에서 2018년 135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

한다. 여기에 환자와 동행하는 가족들의 항공료·체류비까지 포함한다면 제주 환자들의 진료비 지출 부담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역 환자 이용률이 높은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온 신규 환자 수가 2011년 707명에서 2018년 1317명으로 증가했고, 입원 연인원은 2011년 7732명에서 2018년 9929명으로 늘었다.

도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도 많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가 ‘중증질환 의심시 서울 등 도외병원을 가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의료진의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로 절반을 넘는 등 도민들이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 높은 편이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2개이지만 제주에는 울산 세종 경북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여기에 의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주지역 의사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전공의 등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면에 계속

<연론3기 공동취재단>

환경지표 강화·중복지표 제외 성과 평가

도, 평가 시행계획 확정
지하수 관리 등 확대·신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유사중복 지표를 제외하고 환경지표를 강화한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올해 성과평가 시행계획

이 지난 6일 확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3개 성과목표(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구현, 청정제주 조성)·핵심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38개 지표로 설정됐다.

특히 다른 조사기관과 유사·중복되는 ‘내·외국인 관광객만족도’ 설문조사 지표가 삭제됐으며,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지하수 관리 지표는 신설, 폐기물 재활용 및 미세먼지 대응 환경지표는 확대됐다.

이외에 성과지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내 교통사망사고 감축(주민치안 지표),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지원(첨단산업 육성), 스타상품 통합지원(수출증가),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실적(제주관광) 등 8개 성과목표치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기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개선

한다.

또 설문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정책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객관성도 강화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정도를 분석하고 제도보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행 등을 전 부서와 협업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보리 황화현상… 흰가루병 조기 발생 우려도

도농기센터, 초기 방제 당부

올 겨울 따뜻한 날씨로 보리 포장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흰가루병 조기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예방을 통해 사전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농기센터는 지난 2월부터 3월 10일까지 주 1회 보리 10개 포장을 대상으로 예찰한 결과 일찍 파종한 포장 및 웃자람이 심한 포장 등 2개 포장에서 10% 내외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보리 생육이 평년보다 10일

정도 빨라지면서 출수가 시작되고 있어 흰가루병 등 병해 발생 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흰가루병은 봄철 따뜻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해에 발생이 많고 파종량이 많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웃자라고 연약하게 자란 포장에서 발생한다.

흰가루병은 잎에 밀가루 같은 흰가루가 반점처럼 생기며 심한 경우 줄기까지도 흰가루가 번지며 잎이 노랗게 말라 죽는다. 발생시기 또는 기상조건에 따라 최고 20% 정도 수량 감소를 초래한다.

오은지기자

>>> 잠자는 안전 처리 언제쯤… 2면 / 도내 학교 1/4 보건교사 없어… 5면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